

中國 古代思想과 數와 建築

(I)

宋 旼 求

(송민구진축)

우리나라 文化가 中國의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中國의 古代思想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나라 文化 또 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中國의 古代思想은 그리이스의 피타고라스의 철학과 유사한 점이 많아 우선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피타고라스가 가장 중요한 教義로서 취한 것은 靈魂輪廻說이다, 그가 東方에서 學問을 닦았다는 說도 있으나 지극히 佛敎思想에 가까운 생각을 하였다.

또 그는 數로써 세계가 지배되고, 그의 本質을 이루며 價值를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數에서도 그 근본을 奇數와 偶數에서 보아 전자를 한이 있는 것 후자를 한이 없는 것이며, 전자가 후자보다 앞섰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계에 있어서의 일체의 對立 또한 數의 관계에 입각한 調和에 의하여 統一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타고라스 및 그의 學派는 數論에 있어서 自然 및 人間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시켜 物自体도 數이며 마치 本質이 生成하는 것이 數에서 이루어져 物自体는 數의 似姿라고 하였다.

數의 根本要素는 1과 多이며 이 對立은 限과 無限의 對立과 같고 奇數와 偶數의 구별 또한 이에 연유되며, 自然界에 實在하는 모든것 즉 靜과 動, 光과 暗, 男과 女, 倫理에서 完全과 不安全, 善과 惡의 對立은 數에로 歸一한다는 것이다.

中國의 古代思想 역시 모든 것이 數의 개념으로 환원되며, 더욱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그 구조로 보아서는 天文에서 人間매사에 이르기까지 한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동방의 思想이 서쪽으로 전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현재 우리들 생활 깊이 스며 었는 여러가지 일들을 더

듬어 보자.

陰宅術, 墓相學, 堪輿說(감여설), 凶讖說(도참설), 地相學, 風水地理說 등은 우리들 생활에 뿌리 깊게 내려있어 항상 경험하는 바며, 이것들은 明堂이라는 개념에 뭉친다.

현세에 대한 것은 비교적 현대감각으로써 신경을 덜 쓰나 吉區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 집터를 구한다에서 氣學, 方位學, 奇門遁甲術, 九星說을 통한 占에 의지한다. 이러한 方位學도 결국은 九星說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陽宅術, 家相學 다 方位에 대한 개념에 들어 간다.

易占術이라든가 作名 심지어 醫術의 四象醫學까지 또 음식의 맛, 季節, 倫理에 이르기까지 數의 神祕性에 되 돌아오게 된다.

검하여, 건축에 있어서 古建築은 인도에서 전래된 佛敎는 본래의 모습이 儒敎 및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변질되며, 특히 불교예술의 하나로서의 사찰건축은 佛敎思想의 변천과 더불어 앞에서 말한바 中國의 古代思想과 융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古代思想을 등한시하는 태도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현대적 사고와 고찰방법에서 충분히 해석이 되리라는 過信이 그 하나다.

둘째는 古代思想에 周易이 얽혀 있어 이것을 천시하는 태도이다.

셋째는 복잡하고 난해한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學的 태도가 아니며 周易의 천시에 대해서는 朱子는 말하기를

「易은 원래 卜筮(복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후세의 학자들이 卜筮의 설을 비루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다。」라고 지적하였듯이, 易을 경시함으로써 古代文化의 의미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孔子 역시 易을 애독하고 주석을 붙였었다.

易은 易經 또는 周易이라고도 하며, 유교경전의 하나이다.

易, 詩, 書, 禮, 春秋를 經이라고 하였고 周禮에 의하면, 三易으로 점쳤다는 것인데 三易은 連山, 歸藏, 周易을 말하며, 오직 周易만이 수천년을 내려와 지금까지도 전하여지고 있으며, 우리들 생활에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들의 귀여운 子女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혼인의 결정을 함습이라는 수단으로 운명을 결면서도 그것이 수천년을 내려오는 易에 그것도 數의 神祕性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天文, 陰陽五行, 五星, 九星 모든 古代思想이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東洋思想으로 형성되고 우리가 밝히고자하는 건축의 의미, 예술의 의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우리들 건축이라는 예술속에 8각형 또는 원의 8등분 또는 45도 패턴이 없는 것이 거의 없다.

이것은 宇宙萬象을 심볼화한 入卦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인간의 생과 심볼화 된 우주를 밀착시킴으로써 그의 영원한 생의 집념을 예술에 담았던 것이다.

周易과 數

周易 繫辭上傳(계사상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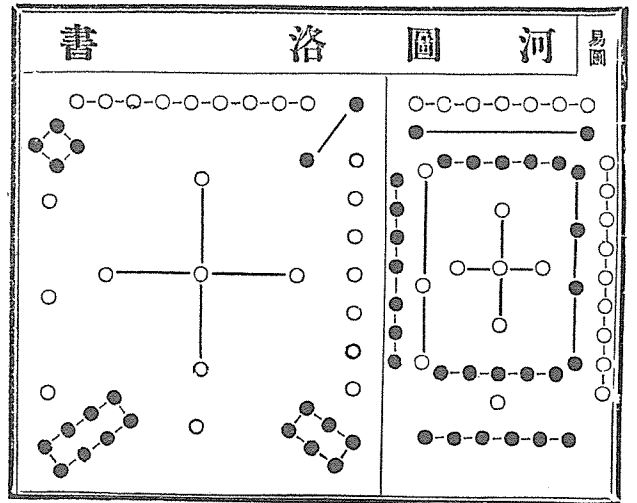
「옛날 포희씨(包犧氏)가 천하에 왕노릇할 때, 우러러서는 하늘에서 상(象)을 보았고, 굽어서는 땅에서 법을 보았고, 조수(鳥獸)의 무늬와 땅의 마땅한것을 관찰했으며,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물건에서 취해서 비로소 八괘를 지었다. 이것으로써 신명(神明)의 덕에 통하고 이것으로써 만물의 뜻을 분별했다.」

中国 黄河에서 출연했다는 용마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을 河出圖 또는 河圖라고 하며, 이 河圖를 보고 포희씨라는 성인이 진리를 깨달아 八괘를 그으셨으니 그것이 곧 포희八괘이다.

河圖는 (그림 1)과 같으며 흑배점의 백은 음양의 양을 나타내고 흑은 음을 나타내며, 또 양은 홀수 음은 짝수를 나타내는 동시에 1에서 5까지는 生, 6에서 10까지는 成을 의미 한다.

이 河圖에서 포희씨는 天文地理人事의 묘리를 분별하

여 八괘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림 1)

河圖에서 數의 배열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것은 원래 河圖나 洛書(낙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1세기의 朱震(주진)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처음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며,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方陣(방진)으로서, 가로 세로 및 대각선의 數의 합이 모두 15가 된다는 神祕性에서 유래된 것이다.

4	9	2
3	5	7
8	1	6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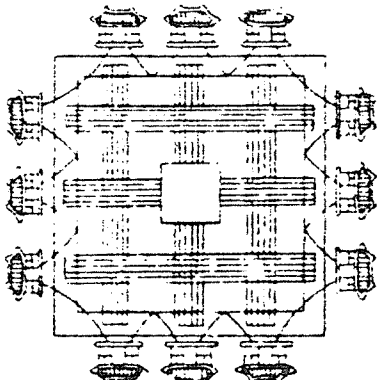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은 古代 도시계획에서도 나타난다. 즉 國中九經九緯라는 것이 그것이며 周대에 도읍내에 아홉개의 길을 동서로 통하게 하고, 城門을 각각 3개씩 둔다. 남북 또한 그렇게 하고 중앙에 궁을 조영한다 (그림 3) 그러면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方陣의 개념과 같게 된다.

註: 洛書라함은 중국 夏나라 禹帝 때 洛水라는 강에서 신비스러운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와 그 거북의 등에 쓰인 글을 洛書라고 하였다.

그것은 周文王이 작도한 것이어서 文王八괘라고 하는데, 포희씨 八괘는 서로 마주보는 數의 합이 9이며 文王八괘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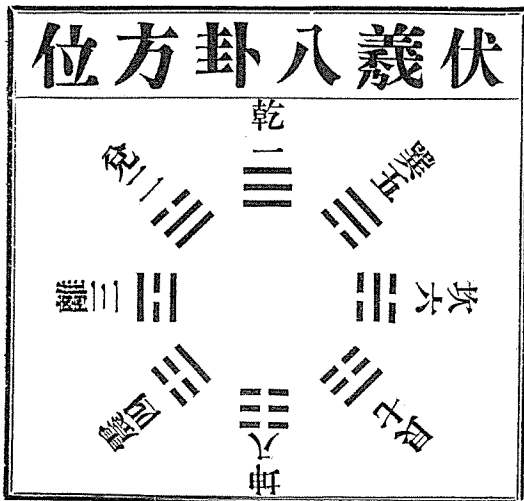
의 합은 10이고 5가 중앙에 자리잡는다. (그림 4, 5)

〔九緯〕
 代國都 中東西 代國都 中東西
 緯九緯 經九緯 緯九緯 經九緯
 緯九緯 經九緯 緯九緯 經九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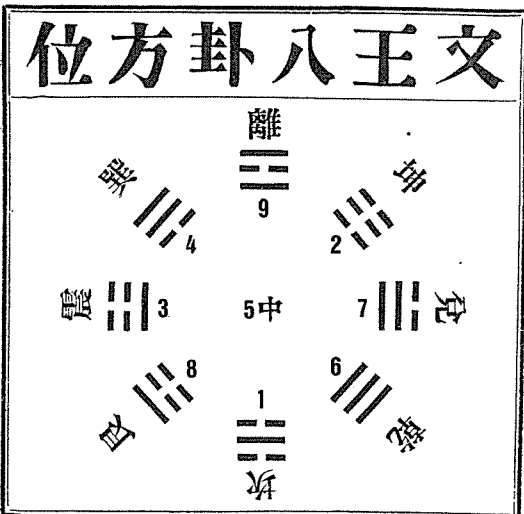


(圖器禮)緯九經九中國

(그림 3)



(그림 4)



(그림 5)

이상의八卦방위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포의八卦도는 선천(先天), 시간, 사상(四象), 정신, 형이상(形而上)의 세계를 암시하고 이선기후(理先氣後)에 입각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설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明堂에 대한 사상적 근원이 될 것이다.

문왕八卦는 후천(後天), 공간, 五行, 물질, 형이하(形而下)의 세계를 뜻하고, 기선리후(氣先理後)에 바탕을 두어 소위 가상(家相) 또는 陽宅의 개념이 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 9와 10의 對立이며 홀수는 天 짝수는 地라는 이치에도 어긋남이 없다.

이상의 것을 수와 대비하여 표를 만들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것이 周易의 첫머리에서 논하여진다.

또 繫辭上傳(계사상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하늘은 一, 땅은 二, 하늘은 三, 땅은 四, 하늘은 五, 땅은 六, 하늘은 七, 땅은 八, 하늘은 九, 땅은 十이다.

天數도 五, 地數도 五다.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는 것이 있다. 天數는 二五, 地數는 三〇이다. 무릇 천지의 수가 五〇이요 또 五다. 이것이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것이다.

大衍(대연)의 수는 五〇이지만, 그 쓰는 것은 四九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天地를 형상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형상하고, 이것을 四로 세어서 四시를 형상하고, 奇數로 蓍草(시초)를 손가락에 끼워 閏(윤)을 형상한다. 五년이면 다시 윤달이 든다. 그러므로 다시 시초를 손가락에 끼운 뒤에 걸어놓는다…」

註: 三才라 함은 天, 地, 人을 말함.

위에서 大衍(대연)의 수의 근거는 확실치 못하다. 十干, 十二支, 二十八宿의 합계라는 설과 태극, 양의(兩儀), 日月, 四時, 五行, 十二月, 二四氣의 합계라는 설, 또는 天地의 수가 원래 五五였는데 五行의 氣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뺀 나머지가 五〇이라는 등 설이 구구하다.

朱子は 天五에다 地十을 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축(筮竹, 점치는 대) 五〇개비가 天地의 神祕을 감추어 있다고 한다. 그 五〇개비 중에서 한 개비는 有의 모체가 되는 無를 상징하는 太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四九개비이다 라고 말한다.

이상과 같이 大衍(대연)의 수라는 것은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metaphor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든 근본에는 수의 神祕로운 성질을 말함이며 宇宙의 질서를 심볼화한 것에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여기서 三才를 형상하고라는 대목은 중요하며 古建築에는 물론 우리나라 한글을 창안할 때에도 이 개념이 쓰였다.

건축에서는 三才를 형상한다는 것은 직각 3각형의 3변에 적용이 된다.

또 같은 뜻에 있어서도 「하나를 곁어서 三才를 형상하고, ...」라고 하는 구절은「掛一以象三」을 읽은 것인데, 掛라 함은 卦와 같다고 되어 있어 반듯이 곁어서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으며, 卦라고 생각할 때, 42가 되는 卦 즉 三三三를 만들고 나머지 7이 24, 25와 삼재를 나타낸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다음에 四시를 24, 閏을 13, 5년의 5를 더하면 42가 되며 또 7은 제곱하면 49가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卦의 --의 신볼은 값이 6이며 4개가 있고 --가 2개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해석이 옳고 그른 것은 차후의 문제로 요컨대 周易이 지닌 심오한 사상은 우리의 文化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근거로 한 중국 고대의 수학과 과학은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일본의 수학자 小倉金之助(오구라 진노스케, 1885-1962)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九章算術」은 중국의 기본적 수학책이었다. 그 안에는 우수한 수학적 방법이 들어 있다. 만약 이것을 그리스수학과 비교하면, 幾何학과 數論에서는 그리스에 떨어지지만 算術과 代數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디오판토스(Diophantos, 275년경)이전의 그리스를 능가한다고 확신한다.

계속하여 다음 구절을 보면,

「乾의 策은 二一六, 坤의 策은 一四四, 모두 三六〇이니 이것은 一년의 날 수에, 해당한다. 두 篇의 책이 一만 一천五百二〇이니, 이것은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이런 까닭으로 네 차례 경영해서 易을 이루고 열 여덟 번 변해서 卦를 이룬다. 八괘로써 조그만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끌어 퍼서 同類에 접촉시켜 크게 한다면 천하의 能事가 끝난다.

道를 나타내고 덕행을 신성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함께 酬酢(수작)할 수 있고, 함께 神을 도울 수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그 신의 하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이중에 乾의 策이라 함은 乾의 기호가 6개 있는데 하나의 값을 9라고 함으로 乾의 값은 54가 되며 이것을 4배하면 216이 된다. 따라서 策이라 함은 4배를 뜻한다.

坤의 경우도 그러하며 기호 하나의 값이 6으로 6개의 값은 36이 되어 이의 4배가 144가 된다.

또 두 篇의 策이라 함은 周易 상경, 하경 전부를 말하며, 이에 나와 있는 기호 64개는 앞에서 말한 바 만물에 관한 것이며, 이것들의 값을 계산하고 4배하여 합하면, 11520이 된다.

11520은 $2^8 \times 5 \times 9$ 이며 지극히 묘한수가 된다. 즉 이에 나오는 모든 것은 天文地理人事 모든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물의 수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만도 하다.

다시 앞에서 말한바 「...그 쓰는 것은 四九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天地를 형상하고...」에 대한 것을 확대 해석해 보기로 한다.

직각 3각형의 3변의 비가 整数로 되는 것은 1변의 비를 素數에 한할 때 3 : 4 : 5, 5 : 12 : 13, 7 : 24 : 25, 8 : 15 : 17, 9 : 40 : 41 다섯가지가 있다.

이의 倍數일 때는 물론 직각 3각형이 성립된다. 다시 말하여 피타고라스 정리의 整数解이다.

1을 제외한 모든 奇數의 제곱을 둘로 나누어 얻어지는 整数는 서로 인접하는 奇數와 偶數이다. 이것과 제곱하기전의 본디의 奇數사이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 整数解를 얻게 된다.

그것은 三才를 형상한다는 것이 고대의 조형예술에 담긴 意味이요 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五 星 說

邵子(소자)가 말하기를

「태극(太極)이 나뉘어 음양(陰陽)이 되고, 음양이 오행(五行)을 생하고, 오행이 만물을 생한다.

註 : 太極 : 우주 만물 구성의 근원이 되는 본체.

五行 : 만물을 조성하는 水, 木, 火, 土, 金의 다섯가지 원기

기

고로 오행의 精은 하늘에 매이고, 五星의 형(形)은 땅에 있어서 五材가 되었으며, 기운은 해(歲)에 거느려 오신(五辰)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장(五臟)이 되고, 물건에 있어서는 五色, 五音, 五味가 되며, 행(行)에 있어서는 오상(五常)이 되는지라.

註 五星 : 다섯개의 惑星 즉 水星, 木星, 火星, 土星, 金星

五材 : 水, 木, 火, 金, 土

五辰 : 다섯 때

五色 : 靑, 黃, 赤, 白, 黑

五音 : 다섯 음울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의 다섯 음계

五味 : 다섯 종류의 맛, 곧 달(甘)고, 짠(鹹)고, 맵(辛)고, 시(酸)고, 쓴(苦) 것

五常 : 사람의 다섯 가지 행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이룸.

고로 임금이 오운(五運)을 타 관직(官職)을 두고, 오례(五禮)를 나누고, 오형(五刑)을 베풀어 만방을 다스리

고, 백성이 다 화순(和順)한 뒤에 이로인하여 득실(得失)을 살피고,

註 五運: 오행(五行)의 운행(運行)함을 이름
 五禮: 길(吉-祭祀), 흉(凶-喪葬), 빈(賓-賓客), 군(軍-軍旅), 가(嘉-冠婚)의 예식을 이름
 五刑: 五종의 형법(刑法)으로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
 예를 들면 수(隋)나라의 五刑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으로 후세는 이를 따름.

비오고, 개이고, 차고, 더운 것과 눈과 바람 등 등, 식물 동물과 및 길흉화복(吉凶禍福)의 변화를 보는 것이니, 비록 만물이 분분(紛紛)하고, 건곤(乾坤)이 광대(廣大)하다 하나, 각각 이러한 류에 쫓아 나온 것이므로 이 모든 관건(關鍵)이 되는 바는 모두 오행(五行)에서 나오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행(四行)의 변화로 길흉(吉凶)의 수를 다 익히지 못하며, 오제(五材)의 변화로 기(氣)를 다 익혀 쓰지 못하며, 오진(五辰)의 변화로 순역(順逆)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무릇 사람은 天地의 중(中)을 받아 그 수기(秀氣)를 생(生)한 까닭에 보고, 듣고, 먹고, 쉬는 것이 오행(五行)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註 四行: 사람이 지켜야 할 네가지의 道理 즉 孝, 悌, 忠, 信을 말함.

따라서五星이란 곧 五行을 뜻하는 것이 되며, 한편 이것이 風水地理說의 바탕이 되는데 다음에 陰陽五行說에서 더욱 뚜렷하여진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5라는 수가 가장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日常言語에도 「별 수가 없다.」「재수가 없다.」「할 수가 없다.」등 手段이라는 수도 있겠으나 數와도 복합된 뜻에서 쓰인 것이라 생각 된다.

註 太極을 나타내는 円은 宇宙를 象徵하며, 반으로 나누는 曲線은 太陽의 黃道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上下를 각각 天과 地 또는 밤과 낮, 萬物의 象인 陰陽등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보면 太極이란 심불이 지닌 뜻은 無限한 意味도 內包되어, 실로 東洋의 思想은 凶形하나에도 깊은 뜻을 부여하였다고 생각된다.

陰陽五行說

한편 중국에서는 陰陽五行說이 모든 사상에 영향을 과급시켰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서 빠지지 않는다.

陰陽五行說이라 함은 天地간에 순환하며 유전(流轉)하여 정식(停息)하지 않는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가지의 원기(元氣)에 의하여 만물이 조성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순환하며 유전(流轉)하여 정식(停息)하지 않는 윤회(

輪廻)의 사상은 원래 인도의 사상이라는 설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論及하지 않겠다.

五行은 萬物生成의 이치이며, 나무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하여 木生火이고, 불이 타고나면 재가 되어 흙이 생기므로써 火生土이며, 흙에서 쇠붙이가 생기면 土生金이고, 쇠붙이가 녹으면 물이 되니 金生水이며, 물에서 나무가 자라나므로써 水生木이라는 이치가 되며, 이것이 순환하며 정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의 다섯가지를 상생(相生)한다고하여 상생격(相生格)이라고 하고 이에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數	五行	意 義	方位	季節
1 · 2	木	育成의 德	東	春
3 · 4	火	變化의 德	南	夏
5 · 6	土	生出의 德	中央	四季의 主
9 · 10	水	任養의 德	北	冬
7 · 8	金	刑禁의 德	西	秋

1, 2 - 木星 세성(歲星)

3, 4 - 火星 형혹(熒惑)

5, 6 - 土星 진성(填星)

9, 10 - 火星 진성(辰星)

7, 8 - 金星 태백(太白)

註 1: 木星은 地球를 중심하여 1廻轉하는데 12년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木星을 기준하여 12년의 12분지 1한 것을 1년으로 하여 천문관측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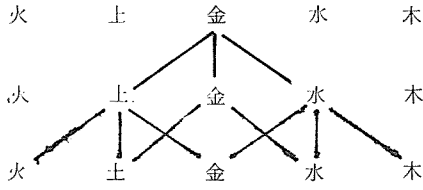
그러므로 orient에서 黃道를 12분의 1하여 黃道十二宮에서 천문관측한 것과는 다르다.

註 2: 火星을 형혹(熒惑)이라고 하여 災禍나 兵亂의 징조물보여 준다는 별이다. 但 옛 學者에 따라 별의 이름들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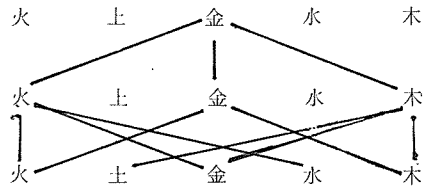
상생(相生)의 반대는 상극(相剋)이며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은 상극격(相剋格)이라고 하고, 상생격(相生格)은 길격(吉格)이고, 상극격(相剋格)은 흉격(凶格)이며, 이러한 天地에 순응하는가 안하는가를 인간 만사에 결부 시켜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전하여지게 된 것이다.

木, 火, 土, 金, 水, 중에서 임의의 항을 택한다. 가령 金과 組合되는 五行相生格을 구하고자 하면 金을 중심으로 하는 케턴을 만들어 아래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 五行相生格이며 8가지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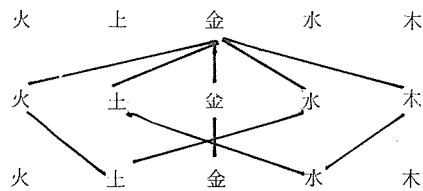
이상에서 연유된 五行相生格과 五行相剋格은 다음과 같다.



五行相剋格은 위의 것 이외의 연결로서 역시 8종의 조합이 생긴다.



이밖에 五行相比格이 있어 그것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五行相生格에 數를 대입하여 보면 數의 질서를 직감할

수 있으며, 그러한 格이 40개 생기게 되고, 이러한 五行說이 陰陽說과 혼성되어 고대사상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陰陽說은 모든 것을 二元的으로 내다본 데에서 비롯되어, 예를 들면 周易의 계사상전(繫辭上傳)의 첫머리를 보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건(乾)과 곤(坤)이 정해진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배풀어져서 귀(貴)와 천(賤)이 자리를 잡는다.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이 상도(常道)가 있어 강(剛)과 유(柔)가 판단된다. 방향은 동류(同類)로써 보이고, 물건은 무리로써 나뉘어지니 길(吉)하고 흉(凶)함이 생겨난다.

하늘에 있어서는 현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상을 이루어 변화가 나타난다.

쉽고 간단해서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면 올바른 자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반대개념(反對概念, contrary concept) 또는 모순개념(矛盾概念, contradictory concept)을 양립시키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고형식을 취한 데에서 분석적이 아니고 종합적이며, 이의 적용의 범위는 넓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상이 건축에서는 陽宅術, 陰宅術 전부에 적용이 되고 있다.